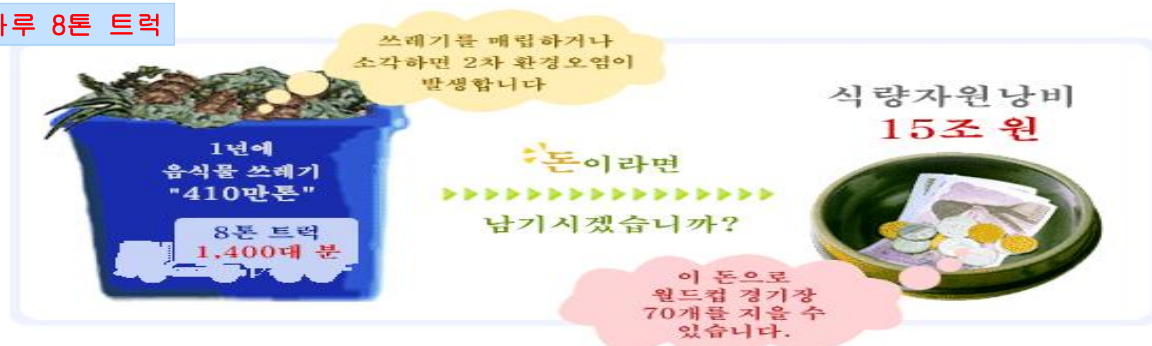


음식물 쓰레기란?

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찌꺼기, 식품의 판매·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,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, 먹고 남긴 찌꺼기, 보관하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의미합니다.

- 농·축·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는 판매와 수송과정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.
- 가정, 음식점 등에서 구입한 식품의 훼손된 부분을 다듬을 때 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며, 먹고 남아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등도 발생합니다.
-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보관 부주의로 변질된 식품 폐기물이 발생합니다.

하루 8톤 트럭



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?

- 음식물 쓰레기는 80% 이상의 수분과 쉽게 부패되는 유기성 물질로 구성됩니다.
-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처리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매립됩니다.
-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의 어려움, 악취 및 오수유출, 부패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이고 신속한 운반이 필요합니다.
- 음식물쓰레기의 매립 또는 소각 처리 할 경우에는 시설 부지 확보와 2차 환경오염(침출수, 대기오염 물질 등) 방지에 고비용이 소요됩니다.
 - 악취발생과 파리·모기 등의 해충번식을 유발합니다.
 - 고농도 침출수가 발생하여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.
 - 매립지를 잘못 관리할 경우 대기, 수질, 토양, 지하수 오염과 지하 침하 발생합니다.

● 음식물 쓰레기를 왜 줄여야 하나?

-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은 우리 자녀에게 물려 줄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.

❗ 라면 국물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정도의 맑은 물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?

- 라면 국물 한 컵(150ml)을 버렸을 때
➡ 5 천 (750ℓ) 컵의 물
- 김치찌개 한 컵(150ml)을 버렸을 때
➡ 1 만 (1,500ℓ) 컵의 물
- 우유 한 컵(150ml)을 버렸을 때
➡ 5 만 (7,500ℓ) 컵의 물



♥ 매립으로 인한 2차 오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면 질소와 유황 화합물에 의한 악취 발생과 파리, 모기 등의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다량의 오수(汚水)를 발생시켜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

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됩니다.

- 2002년 현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은 345개가 운영되고 면적은 약 47km²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해당됩니다.
- 매립장 부지확보 및 쓰레기 빗물, 유출수 방지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.
-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조 7천억원,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비용 연간 4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.
(이는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수입액 1.5배,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비슷하고,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금액임)

* 자료 출처 : (사) 대한영양사협회